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예수사랑 큰잔치, 앞으로 한달

10월 11~15일, 초청전도집회

방문, 심방, 전도를 통해 교회로 초청토록

92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예수사랑 큰잔치가 올해로 3번째, 10월 16일에 실시된다. 지난해의 경험들을 살려 올해는 여러가지로 바뀐 가운데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금년에는 이미 몇달전부터 대신자를 작성하고 기도하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12주용)를 발송해 오고 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발송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방문, 심방, 전도를 통해 교회에 나오도록 권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한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번 전도집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전도집회에 충현의 모든 식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므로 무장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내집 근처를 다니며 열심으로 전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도지를 배부해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달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안면은 있으나 쑥스러워서 말을 건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수사랑 큰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려고 해도 마땅치 않아서 망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중전화카드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공중전화카드는 2천원, 3천원 권 등으로 특별히 교회의 사진이 전면엔 인쇄되어 있다. 이 카드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적은 금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이 전화카드는 교회 테이프 보급소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주부들이 전도할 때 말문을 열고 인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생팩(음식물 보관이나 쓰레기 처리를 위한)을

준비하여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고 있다. 이를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한편 각 교구에서는 교구단위로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새벽기도회 참석, 전도를 위한 특강, 특별모임, 전도를 위한 선물준비 등 다양하게 준비하며 예수사랑 큰잔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이번 예수사랑큰잔치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매주 Ⅳ부 예배후 전 교구일꾼들이 본당에 모여 당회장 신성종 목사로부터 특별교육을 받고 있다. 수요일부 예배후에는 구역장과 구역공과 인도자들이 모여 구역공과 예비공부를 당회장에게 직접 배우기도 한다.

특히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는 당일에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부 교회학교는 교회 예수사랑 큰잔치를 전후한 주간에 각 부서 특성에 맞게 날짜를 잡고 준비하고 있다. 10월 16일 예수사랑 큰잔치 당일에도 교회학교는 정상적으로 회집된다.

또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는 당일에 모두가 모여 끝내는 것이 아니고 10월 11일(화)부터 15일(토)까지 대신자를 대상으로 초청전도집회로 계속 모이게 되고 이때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결신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이 집회는 찬양과 간증과

말씀이 잘 연결되어 교회에 처음 나온 태신자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의 초점은 바로 이 초청전도집회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일인 16일에는 평상시와 같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저녁 찬양예배시에 초청전도집회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야말로 잔치를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모든 교우들은 이러한 흐름을 잘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초청전도집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월 11일(화) : 오후 7 - 9시
- 10월 12일(수) :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저녁 7시에는 수요일부 예배로 모임)
- 10월 13일(목) : 오후 7 - 9시
- 10월 14일(금) : 오후 7 - 9시
- 10월 15일(토) :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지난해 예수사랑큰잔치. 본당이 차고 넘쳐 갈릴리움에서 비디오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습이다.

추석연휴로, 주간성경공부 휴강

추석연휴로 인해 연휴기간(9월 19일 - 21일) 동안에 실시되는 주간성경공부(교사양성부, 권사반 교육, 안수집사반 교육)가 모두 휴강한다. 또한 수요일부 예배 후 실시하던 구역장 및 구역예배 인도자 공부도 금주에는 쉬게 된다.

동산후원회비 인상

10년분 일시납부 30만원

재단법인 충현동산은 그동안 1년에 2만 원씩 내던 동산회비를 95년 1월부터 3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기에 120만원(후원회비 1년분 2만원 포함)인 부담금을 1994년 10월 1일부터 발생되는 매장에 대해 150만원으로 정했다. 이 부담금에는 동산후원회비 10년분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묘지사용 부담금을 내고 묘지에 매장한 사람은 10년동안 동산후원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9월 새가족환영회

각 교구별로 교구모임시간에

9월 새가족환영회가 Ⅳ부예배후 각 교구 모임장소에서 갖는다. 9월중 새로 등록한 사람이 그 대상인데 인도자는 새가족을 이 모임에 참석시켜 하루속히 교회와 교구에 적응토록 해야 할 것이다. 각 교구에서도 이들을 따뜻하게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환영회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바울전도회 연합회

9월 25일, 전도특강

바울전도회 연합회에서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바울전도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총동원을 위해 오는 9월 25일(주일), 오후 3시 갈릴리움에서 바울회원과 전도회원 대상(남 50세 이상)되는 남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바울전도회 연합회 특강을 갖는다.

제3회 컴세미나
COME Seminar

-충현해외목회자교육세미나-

주제: 인도네시아를 하나님께!

- 1994. 9. 28 ~ 10. 6 -

제3회 컴세미나 기도제목

1. 모든 간사와 책임을 맡은 일꾼들이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2. 인도네시아 회교 지도자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초청된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은혜와 성령충만으로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4. 컴세미나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전도, 선교에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컴세미나

한국 교회는 11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교회성장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이 모든 성장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사명으로 인식하여 외국의 사명감을 가진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한국 교회의 부흥된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 교회의 성장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는 세계를 향한 주님의 선교대명을 효과있게 실천하기 위한 영적 전치입니다.

"컴"(COME)이라는 이름은 충현 해외 목회자 교육(Choonghyun Overseas Ministers Education)의 영문 첫글자를 모아 만든 것으로 외국 목회자들이 부흥성정된 한국교회에 "와서"(COME) 한국 교회와 신앙 부흥의 참모습을 "보고" 배우며 사명을 다지는 전도사명전치입니다.

이번 컴세미나(COME Seminar)는 인도네시아의 목회자들이 회교국의 모든 약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성령충만과 높은 비전을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사랑 컬럼◆

'빛을 갇자'

빛은 언제든 갇아야만 한다. 이 가을을 맞으면서 지난 여름을 생각해 본다. 무더움과 가뭄,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우리는 또 빛을 쫓은 사람들이다. 그분 아니라 우리는 갇아도 갇아도 못 갇을 큰 빛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

예수사랑 큰잔치는 그런 면에서 또 좋은 기회이다. 하나님께 쫓은 빛을 이웃에게 갇는다.

두아디라 지역은 셀루커스에 의해서 창건된 도시인데 상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비단장사인 루디아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지만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이단을 용납했습니다. '용납'이란 말의 뜻은 자행하도록 내버려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함께 받았습니다. 두아디라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숭배로 얼룩진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우상숭배로 얼룩진 교회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1. 두아디라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18절) 첫째로 "그 눈이 불꽃 같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공의의 주님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두아디라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둘째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빛남과 같이 성도들이 굳게 서야 할 것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는 심판을 하시는 주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 신을 섬겼는데 이것은 바로 그것에 빗대어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폴로 신을 섬기는 날을 일요일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우연하게도 우리의 주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태양신인 아폴로 신을 섬겼던 데에서 유래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일이라고 불러야지 절대로 일요일이라고 불러서는 안됩니다.

2. 예수님의 칭찬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19절) 라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교회에 여섯 가지로 칭찬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네 사업과", 이 두아디라교회는 많은 주의 사업을 했습니다. 둘째로 "사랑과", 두아디라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셋째로 "믿음과",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넷째로 "섬김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구석구석에서 아주 섬기는 일을 잘했습니다. 다섯째로 "인내를 아노니", 이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을 줄 알았습니다. 여섯째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 갈수록 주의 사업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하고, 그들에게는 믿음과 섬김도 더했고, 또 그들의 인내도 점점 더 많았습니다. 이만하면 도무지 무엇 하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3. 예수님의 책망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0절) 칭찬은 여섯 가지나 되는데 책망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칭찬 여섯 가지를 상쇄할 만큼 아주 심각하고 큰 잘못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두아디라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단을 본문에서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세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추측컨대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은 가나안의 우상을 이스라엘의

퍼뜨린 왕후였습니다(왕상 16:29-34, 왕하 9:30-37).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이단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점점 타협하게 만드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종들이라는 말은 교역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가 하면 일반 평신도들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도 유혹했습니다.



두아디라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 2:18-29)



신 성 중
〈목사·당회장〉

4. 예수님의 권면

첫째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도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왕이 그런 사람이고 엘리와 두 아들 호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아마샤도, 므낫세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도, 또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왕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부자청년이 나오는데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재물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지 어느 순간에 죽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많이 있었겠지만 이세벨이라는 이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복음, 진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이 귀한 줄 모르고 이단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의 직분입니다. 또 가정도 귀하고 건강도 귀중한 것입니다. 물론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알고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 시민권이 귀한 줄 알고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5. 예수님의 경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3절) 예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주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도라" (24절) 이 교회에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인데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썼던 용어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네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받은 영적이고 신비한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 파벌에 가입되면 보통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성경으로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사단의 깊은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6.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6절) 여기 '권세'라는 말은 '핵수시야' 즉 지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보아도 비록 평신도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고 보석처럼 빛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8절) 여기 새벽별은 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니 나 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새벽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 그것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부활의 아침, 승리자가 받을 영적 승리의 아침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두아디라교회에 관한 교훈은 기복신앙에 빠진 현대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선교사 파송, 교육사업 등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단이 들어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의 현저점에서 우리는 두아디라교회처럼 영적인 타협주의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세상과 신앙적인 타협을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귀한 줄로 알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보수적인 신앙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나는 남은 자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 보수적인 신앙, 순교적인 신앙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유산을 굳게 잡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굳게 잡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새벽별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 바람직한 추석을 생각하며 ●

추석의 회상과 회복

장 우 천

(목사, 교육연구소 지도)



추석 회상

추석! 손꼽아 기다리던 그 설레이던 날들이 그리워지는 때이다. 부모님들이 정성껏 챙겨 주시던 추석빔을 받아 입으면서 우리들의 어린 시절은 왕자와 공주였는지. 새바지, 새잠바, 새양말을 신어 보고 좋아라 하면서 추석 음식 준비를 하시는 엄마와 아줌마들 곁에서 침을 흘리다 보면 부침개도 접시에 담아 주셨지. 떡가루를 방아간에서 해서 힘들게 지고 오시는 아저씨의 지게를 받느라고 우루루 모이고 쿵덕쿵 쿵덕쿵 떡 방아 쪼는 곁에 있다 보면 뜨끈뜨끈 김이 오르는 떡덩어리를 한 손 가득히 채워 주셨었지. 추석 전 날은 더욱 기다려지는 일이 있었지. 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부지런히 문에 나가 봤었지. 마침내 집 떠나서 공부하던 누나와 형이 추석을 맞아 집에 오게 되면 동네 친구들에게 "우리 누나 왔다. 우리 성 왔다" 의시대면 친구들이 부러워하곤 하였었지. 추석날 저녁 아버지는 친구들과 어울리시러 나가시고 엄마, 누나, 형은 가족들이 둘러 앉아 송편을 빚는 일에는 나도 빠질 수가 없었지. 엄마가 빚는 송편은 비선코마냥 아담하고 누나가 빚는 것도 엄마 것과 비슷해 보였는데, 형이랑 나랑은 만두처럼 납적하고 콩이랑, 밤이랑 속이 자꾸 터져 나와 이리 때우고 저리 때우면서 슬그머니 송편 상위에 올려 놓았었지. 달은 둥그렇고 공기는 선선하여 기분 좋은 밤이 깊어만 갔었지. 마침내 졸음을 참지 못하여 이부자리에 들면서도 잠자기가 몹시도 싫었었지.

마침내 추석날이 되었나 보다. 아직도 이부 자리 속에서 동생과 꼭 껴안고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는 어머니 소리가 들리면서 구수한 음식 냄새가 코에 들어 왔었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몇 번하다 오늘이 추석 날인 것이 생각나면서 이내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대야에 세수하고 들어 와서 먹는 음식 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그득 하였었지. 식사하기 전에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 찬송가 부르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 예배 시간을 간단히 가졌었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눈을 뜨면 하얀 쌀밥에, 맛있는 불고기도 있고, 김도 있고, 어제 맛있

게 먹던 녹두 부침개도, 솔잎 향기와 무늬 남아 있는 송편도, 처음 보는 토란국이란 것도 있었지. 이것저것 많이 많이 너무 먹어서 추석날은 아침부터 뱃속이 무겁게 느껴졌었지. 아침을 잘 먹고 새옷으로 갈아 입고 나면 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시고 또 엄마도, 누나도, 형도 조금씩 돈을 주어 신이 났었지. 자랑도 할겸 옆집 동무들을 찾아 나서면 잠시 후에 한때가 되어 뒷산에도 올라 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었지. 놀다가 배고프면 집에 와서 먹고, 또 나가 놀고, 또 들어와서 먹고, 또 나가 놀고 하면서 하루 해가 지났었지. 밤에는 누나랑 형이랑 손잡고 뒷산에 올라 달구경을 하면서 달 속에 있는 계수나무와 방아 쪼는 토끼를 찾느라고 눈을 크게 뜨곤 하였었지. 누나 등에 업혀 옛날 얘기를 듣다 보면 모르는 사이 잠이 들고 업혀서 집에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지. 한참 가다가 누나가 무거워하면서 "너 안 자지?" 물어도 못듣는채 눈을 꼭 감고 집까지 다 와서 이부자리에 내려 놓아야 비로소 잠이 깬 듯 기지개를 켜었지. 어린 날의 추석은 이렇게 마냥 즐겁기만 하던 날이었었지.

추석 회복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 추석은 회상할 뿐만 아니라 그 회상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추석은 우리 한 민족에게 어떤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추석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 많은 명절들이 있지만 추석은 가히 최고의 명절이다. 설날도 좋고, 대보름도 좋지만 추석만은 못하다. 날씨 탓도 있겠고 음식 탓도 있겠다. 추석 때는 덥지도 춥지도 않고 음식물도 풍성하다. 햇곡식은 나왔지만 본격적인 추수 때는 아직 일러 들판에는 누렇게 익은 벼가 출렁이고 각종 과일 나무에는 사과, 배, 대추, 감, 밤 할 것없이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 마음은 풍요롭다. 추석 때 명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는 추석을 명절로 기리는 마음이 깊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석은 아름답고 호젓한 명절임에 틀림없

지만 추석은 우리 민족의 전래 민속 신앙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추석날은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면서 조상의 덕을 감사하기 위하여 음식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차례에 올렸던 음식을 가족들이 나누어서 먹는다. 아침 차례가 끝나면 가족들은 음식을 싸 가지고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 성묘를 하면서 조상의 은혜를 감사하며 조상의 무덤 앞에 차려온 음식을 펼쳐 놓고 가족들이 큰 절을 한다. 성묘가 끝나면 벌초를 하면서 무덤을 돌아보고 음식을 먹는다. 고향에 내려가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떨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간 신앙적 행사가 있는데 진도에서는 추석 전날 밤 사내 아이들이 밭에 가서 별저벚고 고랑을 기어가는 풍속도 있고, 발독에다 음식을 차려 놓고 토지신을 위하는 일도 있다. 이것은 풍년을 기원하는 것과 아이들에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신라에서 시작된 추석과 유사한 명절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었는데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 부족이 10월 중에 날을 잡아 한 자리에 모여 선조인 주몽신과 하백너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풍성한 수확을 주신 신에게 감사하는 농제를 올렸다. 부여에서는 영고, 예에서는 무천이라는 명절이 있었는데 이러한 제천의식 신앙이 역사적으로 추석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에 대한 회상은 단순히 동심과 향수의 세계에 머무를 수가 없다. 추석의 의미가 추수감사와 생에 대한 감사라면 마땅히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하겠는데, 이 감사의 대상을 왜곡하여 땅이나, 바다나, 만들어 놓은 헛된 신이나, 죽은 조상들에게 감사를 돌리고 있다는 것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일이 되고 만다. 추석을 즈음하여 강하게 느껴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옛새 만에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임에 틀림없다.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낱아 주시고 길러 주신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인간의 무지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왜곡되어 우상숭배로 전락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추석이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의 것이 되기 위하여는 추석도 거듭나야 한다. 인간의 죄악을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



▲ 추석이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의 것이 되기 위하여는 추석도 거듭나야 한다. 인간의 죄악을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추석이 새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참으로 누릴 수가 있다. 우리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축복을 감사하는 기회로서 추석을 생각하고 만들어 갈 때 추석은 참 추석이 될 수 있다.

무스럽이 나지 않도록 한다는 신앙에서 나온 전통이다. 보통 시골에는 추석 무렵에 그 해의 농사 중에서 가장 잘 익은 곡식으로 벼, 수수, 조 등의 곡을 골라 뿔아다가 묶어서 기둥, 방문 위나 벽에 걸어 놓는 율계삼나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 곡식들이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고 믿는 데서 비롯된 것들이다. 민간에서는 부엌의 부뚜막에 불을 담당하고 재산을 다스리는 조왕이라는 신이 좌정하고 있다고 믿어서 추석날에 조왕을 위하여 정화수를 떠놓는 일도 있다. 어른에서는 추석 때에 햇고사를 지낸다. 음식을 차려서 선주 집에서 고사지내기도 하고, 바다에 나가 고사지내기도 하면서 풍량을 만나지 않고 만선을 낼기도 한다.

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추석이 새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참으로 누릴 수가 있다. 우리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축복을 감사하는 기회로서 추석을 생각하고 만들어 갈 때 추석은 참 추석이 될 수 있다. 그 래야만 비로소 추석은 참 축복과 감사의 명절이 되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부모님께 대한 감사, 가족간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과 돌봄, 민족에 대한 애착, 세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평화의 즐거움 잔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석 잔치야말로 바로 영원한 천국 잔치의 맛보기일 것이다.

물맷돌

그리스도인이란 ①

죄가 무엇이고 어느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옳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지만 나는 안 지었소. 당신은 사치하지만 나는 검소하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식의 의(義)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불의(不義)한 자를 의로운 자리로 오게 하는 의(義)이어야 한다. 의란 있는 것이 아니고 틀린자를 옳은 자리에 오게끔 하는 용서, 기다림, 영향력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기도, 지혜, 분별, 절제가 나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토막소식

- ◆ 임마누엘 찬양대는 오는 10월 3일 선릉에서 대원 단합대회를 가질 예정.
- ◆ 가브리엘 찬양대는 오는 9월 30일(금), 연습시간에 성경암송대회를 갖는다. 범위는 야고보서 3-5장.
- ◆ 영아부는 새친구초청잔치를 10월 9일 주일에 갖는다. 또한 9월 25일 주일에는 각 반별로 찬송가부르기 대회를 갖는다.
- ◆ 유치부는 9월 대심방의 달을 맞아 교사들의 심방이 한창. 9월 25일에는 찬송가부르기 대회를 갖는다.
- ◆ 초등1부는 9월 18일, 1학년 3반 이명자 선생 담당의 연구수업을 실시한다.
- ◆ 초등2부는 10월 30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중이다. 교회 질서·환경보호를 위해 이에 관련된 그림 한점씩을 그려 오도록 하고 있다.
- ◆ 초등3부는 9월 한달을 학생심방의 달로 정하고 교사들의 심방이 한창. 예수사랑 큰잔치를 10월 9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취침전 10분씩 기도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 ◆ 초등4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계획하며 특히 장기결석자에게 집중하여 학생심방기간중 장기결석자를 반드시 심방할 것을 권하고 있다.
- ◆ 초등5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편지 보내기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학생심방기간을 이용하여 예수사랑 큰잔치를 성공리에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 ◆ 중등1·2·3부는 중등부 연합 「시와

- 찬양의 밤」을 오는 9월 29일(토) 오후 3시부터 갈릴리홀에서 모인다. 「시와 찬양의 밤」은 중등부의 전통적인 행사로 중등부가 분할된 후 각 부서에서 열리던 것을 금년은 연합하여 교회내의 모든 중학생들이 모이는 뜻깊은 행사이다.
- ◆ 고등부는 신입부, 영어성경부, 선교부의 소그룹을 새롭게 신설하며 각 담당교사를 임명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 ◆ 대학부는 10월 2일 면려회 총회를 갖고 사업보고, 회장단 선출 등의 일을 처리한다.
- ◆ 청년부는 지난 주일(9월 11일) 오후에 면려회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에 홍문석, 부회장에 조창호, 서혜정을 선출했다.
- ◆ 장년1부는 9월 25일 주일집회에서 계속됐던 히브리서를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한다.
- ◆ 소망부는 9월 25일 찬송가부르기대회를 갖는다. 10월 9일에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갖는다.
- ◆ 새가정부는 10월 9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갖고 새가정부에 출석하지 않는 신혼가정, 6주 이상 결석하는 가정, 3년 미만의 결혼가정을 대상으로 전 교회적으로 이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하려고 한다. 9월 25일에는 「부부의 신앙성장」이란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 ◆ 에바다부(성인)는 지난 주일부터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한글공부도 겸하게 된다.
- ◆ 사랑부는 오늘 2부 순서시간에 성경암송대회를 갖는다. 암송구절은 고린도 후서 9:7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 :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늘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 신성중 목사 : 능력충만, 성령충만, 은혜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큰 은혜받게 하옵소서.
2. 총헌의 성도들이 추석을 맞이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옵시며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3. 이 민족에 우상숭배와 미신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죄악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4. Come Seminar가 하나님의 은혜중에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5. 오늘도 해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 일본 / 유병세 선교사 ●



복음의 씨 뿌리는 자로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새 임지에서 새로운 복음전도의 발을 준비하셨다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타입'의 전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곳 소식을 알려드렸듯이 이곳은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북구라파 사회 복지국가에서 하는 것과 같이 따라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즉 노인들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장애자와 정신치매자(노망증)등이 생기면 그 후손들이 사회 활동에 거침들이 되는 그 부모를 국가사회에서 그들이 젊었을 때 불입한 복지연금과 국가보조로 최고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천, 물리치료, 또한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클래식음악 감상, 민속음악에

의 참여, 시낭송, 가라오케 등 1일 24시간을 즐겁고 편안하게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이곳에서는 의사나 많은 간호원과 보조사와 물리치료사 등은 그들이 편안하게 지내도록 돌보거나 작업공예훈련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과 내용은 잘 되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중심, 우상중심의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입소자들 100명중 20명은 치매, 우울, 정신병 소지자들입니다. 이들을, 58명의

직원들이 각 분야대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분이 시설원장이므로 복음의 씨 뿌리는 자로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취임인사와 환영파티와 또 시설내 발행되는 Home News 신문에 전도서 1:1-18, 창세기 1:26, 2:7, 3:23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인생의 결국의 구원은 이런 Nursing home에서 무서워하며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12:13 말씀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의 성경 말씀을 들려

이 불쌍한 영혼들중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또 기뻐던 일은 이곳에서 뿌린 野越孝子씨가(58) 삿포르에 사는 그 언니와 함께 생선을 가지고 이곳까지 찾아와 주 안에서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교회의 배후기도와 말씀으로 변함 없으신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주소 : 北海道 空知縣 北村字 赤川 586-63, 北村 Nursing Home 舍宅 463-020 齋炳世

시

예수사랑 큰잔치를 맞이하며

이 형 주
(권사, 제17교구)

천지창조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죄를 지고 가실 어린양을 보내시사
내죄를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게하고
최후에 남긴 선물 오순절 성령일세

자옥마다 피와 땀이 어려있는 그 발걸음
나도 내 십자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되지 말고
주를 위해 순교당한 스테반의 후보되네

겉세마네 피땀흘려 마지막 드린 기도
주님 자신 했던 기도 나를 위해 합이로다
우리도 주님 같이 온 힘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한 기도 드리게 하옵소서

풀과 같이 썩어버릴 육신소유 다 버리고
주님 가신 길이라면 험하여도 따라가세
마지막 세대에서 믿음을 보겠나신
주님 말씀 기억하고 정신차려 믿어보세

주님 가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내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 알려주세
내 목숨 다 하는 날까지 주를 위해 살리라
면류관 바라보는 그 기쁨에 참여하세

한국땅에 총헌교회 구원의 방주를
총헌의 십자가 세상에 등대되어
선장되신 우리 주님 40년 역사를
이만여명 구원 성도 주께 영광돌리자

말세지말 당하여서 주님 제자 삼으시고
우리 민족 구원위해 이룩하신 제단
천국 비밀 토하시며 복음전케 하시고
생명 영혼 구원 얻어 새역사 이루시어

사랑으로 뭉쳐진 총헌의 성도들
변함없는 사랑으로 겸손을 주시사
부르짖는 기도소리 응답을 주시어
주님 앞에 설때에 땀땀이 서리라

나의 일생 나의 행적 뒤돌아 볼 때
부끄럼 없는 생애 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정신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에 들림 받게 하소서

천구백 구십 사년 시월 십육일
전도폭발 예수사랑 큰잔치 베푸시고
천만성도 참례하는 혼인잔치되어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리